

중년층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 요인이 노후 주거환경 요구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raditional Minds on Housing of the Middle-aged
on Residential Demands for the Elderly Life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 교수 윤재웅
박사과정 고경필

Dept. of Home Management, TaeGu Hyosung Catholic Univ.
Associate Professor : Jae-Woong Yoon
Doctoral Student : Gyeong-Pil Ko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housing suitable for the Korean elderly by analyzing traditional minds on housing of the middle-aged. Data were collected by the questionnaire from 696 middle-aged in 40's and 50's living in Chinju area.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tatistical methods of One-Way MANOVA, scheffe's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ch were processed with SAS. Following are results.

1) Middle aged people had four main traditional factors in their minds: a propensity toward traditional indoor atmosphere, traditional housing space, traditional housing value and ceremony space & traditional life style.

2) Socio-demographically, a propensity toward traditional housing space and ceremony space & traditional life styl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exes, but not by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A propensity toward traditional indoor

* 본 연구는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atmosphere and ceremony space & traditional life style were different between housing types.

3) However, there wer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variables such as sex, educational level, income and housing type in residential demands for the elderly life.

4) Sex, housing type, a propensity toward traditional housing space and traditional housing value influenced residential demands for the elderly life in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s, nearby facilities and available services all of which were minor items in the demand for the elderly life.

I. 서론

노인에게 있어서 주택은 퇴직 후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되며 사회적인 관계와 관심이 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된다는 점에서 볼 때 생활주기상 가장 의미 있는 일상생활의 장이 된다. 이러한 생활의 장이 확보되지 않을 때 노년기의 생활은 불안해 지고 정서적·심리적으로도 안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주거의 제공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박재간, 1992). 노인주거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의료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처우문제에 있기 보다는 노인 인구 중에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한 거택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공급이나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등과의 긴밀한 연계에 의한 적절한 주택 및 주거환경의 제공이라 할 수 있겠다.

실버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인부양기능의 약화, 노인들이 선호하는 거주형태의 변화, 노인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건강유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의식의 변화에 따라 민간기업들이 노인주거시설 분야에 진출하여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주거단지 형태로 개발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주거계획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방향 설정은 매우 시급하다.

개항 이래 우리는 타민족에 의한 식민지배와 민족분단의 전쟁 등 역사발전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시대적 상황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가치관, 생활양식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서구적인 주거문화권으로 편입되면서 전통문화의 단절을 경험하였다.

주거문화의 편입과정을 더듬어 볼 때 서양주택과 전통주택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근대화가 가져온 변화의 속성에 의해, 우리의 생활양식과 서양주택의 물리적 환경 사이에서 전통적 생활양식에 향수를 가지고 있는 중년층은 괴리감을 느낄 것이다. 즉 한국의 중년층은 기본적으로 농촌사회 또는 전(前)산업사회의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므로 그들은 관념적으로는 합리주의, 민주주의 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실제적 생활양식은 전통주의, 권위주의 등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중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과거 집에 대한 의식과 생각들을 들추어 내고, 내면화된 요구에 적합한 주거를 개발하여 안정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노후를 맞이하도록 노인주거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유의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관점은 노인주거시설의 기초자료 수집과 기본적 계획조건(지순, 윤복자 외, 1986; 고성룡, 1990; 박태환, 1990; 오찬옥, 1992; 허병이, 1992; 전명숙, 1994) 등을 고찰하거나 외국의 사례를 반영하여 노인주거를 계획(박태환, 1987; 김태일, 1992; 김태일 외, 1993; 이경락 외, 1996)하려는 데 머물고 있어, 거주자의 주거의식이 반영된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노인주거 개발방향을 설정하는데는 다소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우리 주거에 대한 전통성 중 계승되는 요인이 무엇 인지를 찾아내고, 이 전통성 요인이 노후의 주거환경 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노인주거문화의 정착과 확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생활에 적합한 한국적 노인주거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

인간환경에 대한 접근방법이 과학적·계량적인 경향을 강하게 지니는 요즈음 주거환경에 내재하는 의미와 상징적 가치의 중요함이 쉽사리 간과되어 버린다. 물론, 시간의 흐름속에서 가치관과 문화가 바뀌게 되고, 주거형태 또한 바뀌게 되지만, 주거는 그 나라의 문화와 풍토가 맞물려 독자적인 주거형태와 고유한 주거문화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주거는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표현하는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의 측면 중 지금까지 주거형태가 많이 남아있으며, 문헌으로 접근하기 쉬운 조선시대를 주축으로 하여, 사상적 측면인 전통적 주거의식과 물리적 측면인 전통적 주거공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1) 전통적 주거의식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전통 주거에 우리 민족의 사상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식된 사실이다. 그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크게 우주적 이미지의 사상으로 천문사상과 음양오행 사상, 풍수지리 사상이 있고 종교적 사상으로는 샤머니즘과 유교적인 요소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지의 선택에서부터 좌향, 평면형태, 건물의 높낮이, 장식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건물의 조영(造營)에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영향을 미쳐왔다(윤복자, 이지현, 1994).

이중 소박한 지모적 신앙과 음양오행설이 결부되어 이루어진 풍수지리설은 집터나 마을터, 도움터 그

리고 무덤자리의 좋고 나쁨이 인간의 길흉화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주남철, 1990)고 하여 풍수지리의 사상적 배경에 집의 모양을 갖추고 각 주거공간의 위치나 방향을 결정하였다. 건물의 배치는 좌향론에 따라 좋은 방위를 갖도록 결정되었는데, 특히 대문과 안방, 부엌 등의 방향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좌향론은 24방위를 음양오행으로 해석하여 각 방위의 성격을 판단한 것인데, 이에 따라 동사택이나 서사택 등 특정한 방향을 갖는 배치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집의 방향은 남쪽이 제일이고 동쪽이 다음이며, 서쪽은 절대로 피하는 것이라든지, 대문, 창고, 변소 등이 각각 좋은 방향으로 자리해야 한다는 등 각 공간의 용도에 따라 특정한 방위와 대응하고 있었다(강영환, 1991).

우리의 전통적 주거의식에 영향을 미친 부분으로 민간신앙을 들 수 있으며, 그 예로 가택신에 대한 의례를 들 수 있다. 즉 성주신, 삼신, 조왕신 등과 같은 가택신들은 일정한 건물이나 공간에 거처하며, 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성주신은 여러 가택신 가운데 가장 최고신으로서 특히 가장인 호주를 보호한다고 믿어졌다. 다른 신들은 깃든 장소나 구실이 한정되어 있으나 성주신은 집자체의 신으로 받아들여져 성주신의 보호없이 한 가정의 복락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성주신은 대청의 들보 위 또는 기둥 상부 등 집안의 높은 곳이나 대청, 안방과 같이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곳에 모시며, 신체는 한지나 곡식이 보편적이며, 곳에 따라 형상이나 대추나무 가지 따위도 등장한다(김광언, 1994).

조선조의 건국이념이며 기본정책인 유교사상은 정치, 경제, 사회 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활질서 및 주택건축에까지 영향을 미쳐왔다. 즉 '집'은 가정생활에서 유교사상의 기본이 되었던 삼강오륜이 집약되어 인륜지도에 의해 여과된 질서의 표현이 되었으며, 이러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도(道)'와 '효(孝)'와 '예(禮)'를 다하기 위한 공간이 형성되어 이른바 유교윤리의 실천장이었다(홍형욱, 1982)할 수 있다. 따라서 '남여유별(男女有別)',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 '남여불공식(男女不共食)' 등을 강조하던 생활질서는 안채와 사랑채를 별도로 두

어 남녀의 생활을 분리시켰고, 조상을 숭배하는 일 이야 말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이었으며, 이에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전통적 주거공간

우리 나라 전통주택의 물리적 측면에서 가장 상징적인 특성이 있다면 그 첫번째가 발생과 발달경로가 각기 다른 온돌구조인 구들과 마루가 한 건물안에 공존해 있다는 사실이다. 온돌구조가 남쪽으로 전파되었던지, 또는 마루 구조가 북쪽으로 전파되었던지간에 오늘날의 주택구조로 볼 때 어느 시기엔가 두개의 구조가 하나의 주택안에서 결합되었다면 그것은 지역문화의 이동과 전파에 의한 결과로서 사계절이 분명한 기후적 특성속에서 여름과 겨울을 동시에 고려한 주택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후 한국 주거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만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진다(강영환, 1991).

온돌방은 온돌난방과 더불어 장판지를 마감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방의 전용 가능성을 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좌식생활이라는 중요한 생활양식을 낳게 하였다.

한국 전통건축에 있어서 창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 이유는 건물정면의 거의 전부를 벽체 대신 창호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의 창호구성은 井자 살, 用자 살, 亞자 살, 卍자 살 등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으며, 用자 살 짜임새로된 用자 창은 그 구성이 간결하며, 창호를 구성하는 하얀 창호지 면이 크고, 시원하기 때문에 주택에 있어서도 사랑채와 같이 주로 남성적 공간에 많이 쓰이는 반면 아기자기한 살 짜임새를 하고 있는 亞자 창은 안채와 같은 여성적인 공간에 많이 사용된다(주남철, 1995).

앞서 언급한 여러형태의 창살과 더불어 구성되어 있는 반투명의 창호지는 빛을 적당히 투과시켜 온방안을 은은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기도 하며, 밝은 햇빛이 창호에 비칠 때 창살의 짜임새로 율동적인 그림자를 내부공간에 투영시켜 주기도 하는 것이 한국 창호가 가지는 특성인 것이다.

전통주거에서 마당이라 함은 살림채 앞의 외부공

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건물과 더불어 짝을 이루는 주거공간으로서 집이라는 격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 인식되었으며, 마당은 양기를 받아 들이는 장소로서만이 아니라 수장공간이나 작업공간으로서 비워져있어야 했다(강영환, 1994).

이 외에도 물리적 측면에서의 전통적 주거공간으로는 광, 곳간, 장독대, 변소 등 다양한 공간적 요소들이 있지만 시대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오늘날에는 도시주거공간에서 거의 소멸되거나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많은 변용을 거친 공간적 요소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자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현 중년층의 주거의식에 많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주거환경

1) 주거환경의 의미

주거환경이란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체계의 한 단위로서, 광의적으로는 인간이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무형의 외부적 조건을 의미하며, 협의적으로는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주택 그 자체, 또는 주택의 내·외부와 관련된 여러 조건으로 정의될 수 있다(심우갑, 1994). 그러므로 주거환경계획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물리적 조건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로 볼 때 주거환경은 물리적 단위로 파악되는 것이 통례이다. 즉 주거환경의 물리적 범위는 주택이라는 단위주거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주생활과 직접 연관된 근린생활권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경제적 속성이나 과거 이동률, 주생활에 대한 감정 등을 임의로 첨가하고 있으며, 동일한 연구목적인 경우에도 합의점 없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이지혜, 1987; 서승희, 1988; 고성룡, 1990; 전명숙, 1994).

본 연구에서 주거환경이란 주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건의 생활환경으로서 단위주거의 내·외부환경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주 생활과 직접 연관된 근린시설, 그리고 노후라는 상황이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주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까지를 주거환경의 영역으로 산정하였다.

2) 노후의 주거환경

대부분의 노인들은 은퇴 등 사회적 접촉 기회의 감소, 신체적 운동의 약화로 인해 그들의 활동공간이 좁아져 실내환경과 밀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내부공간 계획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노인은 보행능력, 시각적 능력, 청각적 능력, 공간통합능력이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감소하므로(최정신, 1990) 내부환경은 노후를 위한 주거환경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외부환경은 집주변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표현과 연결되는 정서적 공간으로서 주거환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성룡(1990)은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의 외부공간 계획시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물리적 안전감을 주도록 계획하고, 이동에 대한 보장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명숙(1992)의 연구결과에서는 주거의 외부환경 중 정원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 주거환경의 주요영역으로 지각되는 근린시설 및 근린생활권은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통의 발달로 근린생활권을 벗어나 멀리 떨어진 곳의 편의시설들을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린생활권은 여전히 그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필수적인 편의시설과 가장 편리한 접근수단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서유석, 1995). 특히 이동성과 경제적 수준이 감소된 노인들에게 있어서 지리적 영역으로서의 주거환경으로 정의되는 근린시설은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Hamobitch와 Peterson(1969)의 연구에 의하면 쇼핑시설, 특히 식품점, 레스토랑, 교통수단에 대한 근접성은 주거선택의 가장 중요한 특질로 나타났다(서유석, 1995 재인용). 따라서 신체적, 심리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노인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근린시설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 가운데 이동, 청소, 목욕, 용변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제한되므로 이러한 신체적 변화상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거환경이 필요하다

(이지혜, 1987). 동작이 원만한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불안이 나타나는 상태 등 완전의존형 노인이 되기까지에는 몇가지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에 알맞는 일반적이고 비전문적인 서비스에서부터 고도의 전문적 서비스까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게 되며(상형중, 1992), 이러한 요구에 부응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편의가 주어져야 한다. 박태환(1990)은 노인층의 의존이 증대됨에 따라 생활거점을 바꾸지 않고 계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축적 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주거가 복합된 주거단지의 개발이 요청되므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비스제공 정도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일반적으로, 친숙한 주변환경에 머물러서 가능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모든 노인들의 공통된 욕구일 것이다. 따라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보호의 개념으로 노인들에게 독립생활을 조력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서비스는 노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즉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중년층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 요인은 어떠한가 ?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은 차이가 있는가 ?
-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노후 주거환경 요구는 차이가 있는가 ?
- (4)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 요인이 노후 주거환경요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 노후 주거환경 요구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에 관한 문항은 탐색적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였으며, 내용의 구성이 적합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요인 분석한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3문항을 제외한 15문항을 주요인분석 하였으며,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α 값이 .60이상으로 나타나 전통적 주거의식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최정신, 1990; 유혜정, 1992; 전명숙, 1994)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주거환경은 내부환경, 외부환경, 근린시설, 서비스제공의 네 영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환경과 관련된 문항은 통풍과 환기, 수납공간, 주택의 바닥재료, 가정 자동시스템, 중앙난방과 온수시설, 부엌 및 가사작업설비, 긴급연락 시설 등이다. 외부환경은 주거의 위치, 주차시설 및 진입로의 편리도, 산책로 및 공원의 근접도, 소음 및 공해시설물과의 분리도, 정원 및 채소를 가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도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근린시설과 관련된 문항은 우체국, 금융기관, 관공서, 스포츠 시설, 약국·병원, 목욕탕, 쇼핑센터, 세탁소, 음식점 등과의 근접도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제공은 식사배달 서비스, 가사일보조 서비스, 간호·간병 서비스, 교양·문화·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건물관리 및 보수 서비스, 우편물 및 쓰레기 처리에 대한 서비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내부환경은 $\alpha = .74$, 외부환경 $\alpha = .67$, 근린시설 $\alpha = .72$, 서비스제공 $\alpha = .77$ 으로 나타났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40~5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쳐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1996년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진주시 소재 고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진주시에 거주하는 재학생의 학부모 중 연령이 40~50대에 해당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700부를 배포하여 572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훈련된 조사원(진주산업대학교 생활관리학과 2, 3학년 30명)을 통해 300부를 개별 면접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000부의 설문지 중 872(회수율: 87.2%)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미비한 것을 제외한 69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방법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및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2와 3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 다변량분석(One-Way MANOVA)을 실시하고, Scheffe's 검증을 하였다. 연구문제 4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45.1%, 여성 54.9%로 여성이 약간 많았으며, 연령은 40대가 77%, 50대가 23%로 40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150만원 미만 26.6%, 150~200만원 미만 25.7%, 200만원 이상은 36.3%를 차지하고 있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력은 중졸이하 27.6%, 대졸 28.6%, 고졸 4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유형은 단독주택 55.2%, 아파트 41.2%였으며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82.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기타가 31.9%, 자영업 29.7%, 전문직 17.4%, 사무직 12.9%를 차지하였으며, 직업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남성응답자가 직업을 지니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다수가 주부로 나타나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31.9%나 되었다 <표 1>.

‘전통적 주거공간지향’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취침시 머리를 두는 장소라든지 집의 방위, 집터에 대한 인식과 같이 풍수지리사상 및 음양오행설과 같은 사상적 측면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 ‘전통적 주거가치지향’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성주신을 모실공간이나 제사를 지낼 공간, 입식과 좌식의 생활양식 등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지향’으로 명명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항 목		빈도 (N)	백분율 (%)		항 목		빈도 (N)	백분율 (%)
성 별	남		314	45.1	학 력	중졸이하		192	27.6
	여		382	54.9		고 졸		305	43.8
연 령	40~44세		325	46.7	주 거 유 형	대졸이상		199	28.6
	45~49세		211	30.3		단독주택		384	55.2
	50~54세		99	14.2		아 파트		287	41.2
	55~59세		61	8.8		기 타		25	3.6
소 득	100만원미만		80	11.5	직 업	자 영 업		207	29.7
	100~150만원미만		185	26.6		행 정관 리 직		17	2.4
	150~200만원미만		179	25.7		전 문 직		121	17.4
	200~250만원미만		126	18.1		사 무 직		90	12.9
	250~300만원미만		63	9.1		생 산기 술 직		39	5.6
	300만원이상		63	9.1		기 타		222	31.9

2. 중년층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 요인

중년층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베리맥스(varimax) 방식에 의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아이겐 값(eigen value)과 스크리 검증(scree test) 결과를 통해 4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의 해석은 회전된 요인적재치가 .50 이상인 변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 1은 주택내부의 바닥재료, 창살문양, 가구, 바닥의 난방방식 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통적 실내분위기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손님접대장소, 마당, 장독대, 광과 같은 전통 주거내에서의 물리적 공간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중년층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통적 실내분위기지향 요인이며, 그 다음으로는 전통적 주거공간지향, 전통적 주거가치지향,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지향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이들 요인이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의 개념을 52.3% 설명해 주고 있다.

3.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과 노후 주거환경요구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과 노후 주거환경 요구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의 일반적

〈표 2〉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 요인분석

요 인	문 항 구 성	요인 적재치	eigen value	분산 백분율	누적 백분율
요인 1 전통적 실내분위기지향	· 안방의 바닥재로는 장판이면 좋겠다	0.74	3.806	25.4	25.4
	· 안방과 거실의 창살문양은 전통문양이면 좋겠다	0.74			
	· 우리의 전통가구로 꾸민 방에서 생활하면 좋겠다	0.63			
	· 안방은 온돌방이면 좋겠다	0.61			
요인 2 전통적 주거공간지향	· 거실이나 마루 앞에 옛날 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0.77	1.631	10.9	36.3
	· 자녀나 가까운 친척이 방문하였을 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0.68			
	· 집안에 장독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0.66			
	· 옛날의 광과 같이 자연식품이나 생활용구의 저장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0.63			
요인 3 전통적 주거가치지향	· 취침시 머리를 두는 곳은 남쪽이나 동쪽이어야 한다	0.70	1.274	8.5	44.8
	· 집은 방향과 산수가 좋은 곳이어야 한다	0.64			
	· 집터는 삶의 안식처로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0.61			
	·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안방이다	0.59			
요인 4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지향	· 집에는 성수신(또는 가신)을 모실 공간이 있어야 한다	0.75	1.130	7.5	52.3
	· 집안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0.60			
	· 좌식생활이 입식생활보다 좋다	0.56			

경향에 대해 살펴보면, 전통적 주거공간지향(76.06)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전통적 주거가치지향(73.99), 전통적 실내분위기지향(70.23)의 순으로 나타났고,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지향(57.1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전통적 실내분위기지향, 전통적 주거공간지향, 전통적 주거가치지향 요인은 중년층의 의식에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지향 요인은 중년층의 주거의식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구중심으로 치닫고 있는 현대의 주거문화속에서 노인주거를 계획하고자 할 때, 우리의 전통적인 주생활 특성을 유지하고, 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노인주거를 계획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의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는 내부환경(78.52)과

외부환경(77.32)에 대한 요구는 높게 나타난 반면, 근린시설(71.41)과 서비스제공(72.49)에 대한 요구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노후 주거환경요구에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노인주거 계획시 이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중년층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 다변량분석(One-Way M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중년층의 주거의식에

〈표 3〉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 인		M*	S.D*	Min*	Max*
전 통 적 주거의식	전통적 실내분위기지향	70.23	12.91	20.00	100.00
	전통적 주거공간지향	76.06	11.13	30.00	100.00
	전통적 주거가치지향	73.99	11.29	25.00	100.00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지향	57.14	13.60	20.00	100.00
노 후 주거환경요구	내부환경	78.52	8.57	45.71	100.00
	외부환경	77.33	9.18	36.67	100.00
	근린시설	71.41	8.64	33.33	100.00
	서비스제공	72.49	10.14	27.50	100.00

* 100점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표 4〉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

독립변인	종속변인	전통적 실내분위기지향			전통적 주거공간지향			전통적 주거가치지향			의례공간 및 전통적생활양식지향		
		M	S.D	S	M	S.D	S	M	S.D	S	M	S.D	S
		성 별	남	70.80	12.47	A	75.11	10.74	B	73.31	11.47	A	58.26
	여	69.76	13.25	A	76.83	11.39	A	74.55	11.12	A	56.21	13.26	B
	T	1.10			4.14*			2.09			3.92*		
학 력	중졸이하	70.44	12.87	A	76.38	11.21	A	74.35	10.98	A	59.13	12.81	A
	고 졸	70.46	12.85	A	76.20	10.80	A	74.05	10.57	A	56.20	13.61	A
	대 졸	69.67	13.08	A	75.53	11.57	A	73.57	12.61	A	56.65	14.16	A
	F	0.26			0.33			0.24			2.94		
소 득	100만원미만	70.06	13.51	A	73.44	12.24	A	74.13	11.47	A	58.58	13.11	A
	100~150만원미만	71.51	12.89	A	77.57	11.40	A	74.16	11.74	A	57.73	12.89	A
	150~200만원미만	70.39	12.58	A	76.12	10.61	A	74.16	10.78	A	56.42	12.69	A
	200~250만원미만	70.04	12.80	A	76.11	11.13	A	73.25	11.55	A	56.24	14.50	A
	250~300만원미만	69.44	11.08	A	75.56	9.76	A	74.21	11.47	A	58.52	16.22	A
	300만원이상	67.38	14.83	A	75.16	11.29	A	74.13	10.80	A	55.98	14.19	A
	F	1.04			1.69			0.13			0.68		
주거 유형	단독주택	71.52	12.65	A	76.32	11.12	A	73.80	11.41	A	58.61	13.60	A
	아 파트	68.68	13.10	B	75.87	11.00	A	74.46	10.72	A	55.68	13.60	B
	기 타	68.20	12.90	B	74.20	12.88	A	71.60	15.26	A	51.20	10.13	B
	F	4.36*			0.49			0.86			6.39*		

1) * $p < .05$

2) S; Scheff의 다중범위 검증

3) A, B, C; 다른 문자끼리 유의한 차이가 있음

내재된 전통성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전통적 주거공간지향과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지향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통적 주거공간지향은 여성이 더 선호하였으나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거유형별로는 전통적 실내분위기 지향과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지향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독주택 거주자가 아파트나 기타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전통적 실내분위기와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을 더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과 주

거유형이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주거유형에서 단독주택 거주자가 전통적 실내분위기와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을 더 지향하고 있었으며, 전통적 주거공간지향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한 성향을 보인 반면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은 남성이 더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후 주거환경 요구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후 주거환경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다변량분석(One-Way M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노후 주거환경요구를

<표 5>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

독립변인		종속변인			내부환경			외부환경			근린시설			서비스제공		
		M	S.D	S	M	S.D	S	M	S.D	S	M	S.D	S			
성별	남	76.73	8.39	B	76.24	9.07	B	70.77	8.32	A	71.49	9.56	B			
	여	79.99	8.44	A	78.22	9.19	A	71.93	8.86	A	73.30	10.54	A			
	T	25.84*			8.08*			3.12			5.56*					
학력	중졸이하	77.05	8.45	B	76.00	9.35	B	69.63	8.44	B	70.25	9.99	B			
	고졸	79.08	8.29	A	78.10	9.02	A	71.82	8.25	A	72.65	10.25	A			
	대졸	79.08	8.96	A	77.40	9.15	AB	77.49	9.16	A	74.40	9.73	A			
	F	3.93*			3.12*			6.08*			8.42*					
소득	100만원미만	75.25	10.25	B	73.00	11.52	B	68.19	8.97	B	68.47	10.64	B			
	100~150만원미만	78.76	8.39	AB	78.72	8.54	A	71.28	8.98	AB	72.54	10.59	AB			
	150~200만원미만	78.81	7.42	AB	77.78	8.03	A	72.54	7.27	A	72.69	9.58	AB			
	200~250만원미만	78.05	8.95	AB	76.40	8.93	AB	71.25	8.77	AB	72.40	8.86	AB			
	250~300만원미만	80.49	9.35	A	77.72	10.10	AB	71.60	9.98	AB	74.76	10.67	A			
	300만원이상	80.09	7.16	A	78.88	8.73	A	72.77	8.28	A	74.72	10.42	A			
F	3.65*			5.30*			3.21*			3.85*						
주거유형	단독주택	77.34	8.55	B	76.29	10.23	B	70.20	8.66	B	70.86	10.22	B			
	아파트	80.24	8.23	A	79.01	8.75	A	73.46	7.74	A	74.99	8.76	A			
	기타	76.91	9.43	B	73.87	16.25	C	66.40	12.19	C	68.60	16.25	B			
	F	10.22*			9.26*			16.74*			16.16*					

1) * p < .05
 2) S: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
 3) A, B, C: 다른 문자끼리 유의한 차이가 있음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근린시설을 제외한 내·외부환경 및 서비스제공 변인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학력별로는 노후 주거환경 요구 하위영역 모두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환경, 근린시설, 서비스제공에 대한 요구도는 고졸, 대졸이 중졸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외부환경에 대한 요구도는 고졸, 대졸, 중졸의 순이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내부환경과 서비스제공에 대한 요구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외부환경은 300만원 이상 소득대와 100~150만원미만, 150~200만원미만 소득대에서 타 소득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근린시설에 대한 요구도는 300만원이상, 150~200만원미만 소득집단에서 100만원미만 집단보다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소득에 따라서 각 영역별 주거환경요구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주거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환경과 서비스제공에 대한 요구도는 아파트 거주자가 가장 높고 단독주택과 기타 거주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외부환경과 근린시설에 대한 요구도는 아파트, 단독

주택,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거주자가 타 주거유형의 거주자보다 노후 주거환경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후 주거환경 요구를 살펴보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단독주택 거주자보다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주택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밀집된 주거환경과 높은 인구밀도의 특성 때문에 이웃과 접할 기회가 많아,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된다.

6. 노후 주거환경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노후 주거환경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과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산확대인자(VIF)를 확인한 결과 독립변인들간

<표 6> 노후 주거환경요구에 각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전체 주거환경요구		내부환경		외부환경		근린시설		서비스제공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	4.66	0.15*	1.37	0.17*	0.55	0.08*	1.27	0.13*	1.46	0.15*
학력	0.67	0.10*	0.15	0.09*	0.08	0.05	0.24	0.11*	0.20	0.09*
소득	0.00	0.01	0.00	0.02	-0.00	-0.00	-0.00	-0.03	0.00	0.03
주거유형	4.60	0.15*	0.95	0.12*	0.93	0.14*	1.41	0.14*	1.31	0.13*
전통적 실내분위기지향	0.43	0.07	0.12	0.08	0.19	0.14*	0.04	0.02	0.08	0.04
전통적 주거공간지향	1.43	0.21*	0.40	0.22*	0.26	0.17*	0.36	0.16*	0.41	0.19*
전통적 주거가치지향	1.48	0.22*	0.36	0.20*	0.23	0.15*	0.45	0.20*	0.44	0.20*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지향	-0.41	-0.06	-0.19	-0.10*	-0.04	-0.02	0.03	0.01	-0.21	-0.09*
R ²	0.207		0.200		0.144		0.141		0.169	
상 수	50.833		12.311		10.287		14.563		13.671	

1) * p < .05

2) 가변수(Dummy Variables) - 성별: 남=0, 여=1 주거유형: 단독주택=0, 아파트=1

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한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주거환경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beta=0.15$), 학력($\beta=0.10$), 주거유형($\beta=0.15$), 전통적 주거공간지향($\beta=0.21$), 전통적 주거가치지향($\beta=0.22$) 등으로 20.7%의 설명력을 가진다. 즉 성별, 학력, 주거유형, 전통적 주거공간지향, 전통적 주거가치지향이 전체 주거환경요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전체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beta=0.17$), 학력($\beta=0.09$), 주거유형($\beta=0.12$), 전통적 주거공간지향($\beta=0.22$), 전통적 주거가치지향($\beta=0.20$),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지향($\beta=-0.10$) 등으로 20%의 설명력을 가진다. 성별, 학력, 주거유형, 전통적 주거공간지향, 전통적 주거가치지향은 내부환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지향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전통적 주거공간과 전통적 주거가치를 지향할수록 내부환경에 대한 요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을 지향할수록 내부환경에 대한 요구는 낮았다.

외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beta=0.08$), 주거유형($\beta=0.14$), 전통적 실내분위기 지향($\beta=0.14$), 전통적 주거공간지향($\beta=0.17$), 전통적 주거가치지향($\beta=0.15$) 등으로 나타났으며, 14.4%의 설명력을 갖는다. 성별, 주거유형, 전통적 실내분위기 지향, 전통적 주거공간지향, 전통적 주거가치지향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일수록,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전통적 실내분위기, 전통적 주거공간, 전통적 주거가치를 지향할수록 외부환경에 대한 요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beta=0.13$), 학력($\beta=0.11$), 주거유형($\beta=0.14$), 전통적 주거공간지향($\beta=0.16$), 전통적 주거가치지향($\beta=0.20$) 등으로 나타났으며, 14.1%의 설명력을 가진다. 성별, 학력, 주거유형, 전통적 주거공간지향, 전통적 주거가

치지향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전통적 주거공간과 전통적 주거가치를 지향할수록 근린시설에 대한 요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beta=0.15$), 학력($\beta=0.09$), 주거유형($\beta=0.13$), 전통적 주거공간지향($\beta=0.19$), 전통적 주거가치지향($\beta=0.20$),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지향($\beta=-0.09$)으로 나타났으며, 16.9%의 설명력을 갖는다. 성별, 학력, 주거유형, 전통적 주거공간지향, 전통적 주거가치지향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나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지향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전통적 주거공간과 전통적 주거가치를 지향할수록 서비스제공에 대한 요구는 높았으나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을 지향할수록 서비스제공에 대한 요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별, 주거유형, 전통적 주거공간지향, 전통적 주거가치지향 변인은 노후 주거환경 요구 하위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이 노후 주거환경 요구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득은 노후 주거환경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전명숙, 1994)와 일치되는 결론으로서, 최근 연금제도의 정착과 함께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자립하기를 희망하는(오찬욱, 1992) 현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 주거환경 요구도이므로 현재의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을 지향할수록 내부공간과 서비스제공에 대한 요구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례적인 행위가 가정에서 사회로 이양됨으로써 내부환경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고, 서비스제공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아져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을 지향할수록 서비스제공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중년층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 변인이 노후 주거환경 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층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 요인은 전통적 실내분위기지향, 전통적 주거공간지향, 전통적 주거가치지향,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지향의 네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전통적 주거의식의 일반적인 경향은 전통적 주거공간, 전통적 주거가치, 전통적 실내분위기,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의 순으로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파트 주거생활 중심으로 치달고 있는 현대의 주거문화속에서도 중년층들은 우리 고유의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며, 양택론, 풍수사상 그리고 유교사상과 같은 주거에 대한 전통적 의식이 아직까지 많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전통적 주거공간지향과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지향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력과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거유형별로는 전통적 실내분위기지향과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지향 변인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통적 주거공간을 더 지향하였으나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은 남성이 지향하는 성향이 높았으며, 주거유형별로는 단독주택 거주자가 타 주거유형 거주자보다 전통적 실내분위기와 의례공간 및 전통적 생활양식을 더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노후 주거환경요구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력, 소득, 주거유형에 따라 노후 주거환경 요구의 하위영역 모두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성별에 따라서 근린시설에 대한 요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계획시 이들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네째, 성별, 주거유형, 전통적 주거공간지향, 전통적 주거가치지향 변인은 노후 주거환경 요구 하위영역인 내부환경, 외부환경, 근린시설, 서비스 제공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이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통적 주거공간과 전통적 주거가치지향 변인이 노후 주거환경 요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 앞으로의 노인주거 구성방식에 전통적 주거공간과 전통적 주거가치지향 변인들을 반영시킴으로써 주거의 전통성이 계승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에서 현 중년층의 의식에는 우리 주거에 대한 전통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으며, 전통적 주거의식이 노후 주거환경 요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Rapoport는 토속건축과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공간을 가변적 공간과 불변적 공간으로 나누고, 가변적 공간은 기술적 공간으로 시대와 기술의 진보에 따라 무한히 변해가는 부분이며, 불변적 공간은 인간의 내면적 기본욕구의 항상성에 기반한 공간으로 그 문화적 배경에 따라 특유한 상징성을 지속적으로 갖는 공간이라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노후를 위한 주거환경 계획시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만만의 보완이 아닌 의식에 내재된 불변적, 상징적인 측면까지 포괄할 수 있는 주거계획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40~50대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이어서 다양한 노인주거유형을 개발하였을 때 선택적 가능성이 높은 이점은 있으나 실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현실적인 의견은 부분적으로 배제된 상태라 볼 수 있으므로 현재의 노인과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요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지지 못한 노후 주거환경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더 많은 변인들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강영환,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 2) _____,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4.
- 3) 고성룡,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4)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94.
- 5) 김태일, 일본의 고령자주택 및 복지시설의 동향

- 에 관한 연구-공용주택의 Silver Housing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1), 1992.
- 6) _____, 김성곤, 일본 유료노인홈의 유형별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3), 1993.
- 7) 상형중 역, 노인과 주거, 산업도서출판공사, 1992.
- 8) 서승희, 노인의 주거환경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9) 윤정숙, 주거환경학, 문운당, 1995.
- 10) 박재간, 노인주거산업의 현황과 과제,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 1995.
- 11) 박태환, 호주의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연구(V)-은퇴층의 단지계획을 중심으로-, 경상대 논문집, 26(1), 1987.
- 11) _____, 지역사회 통합형 노인계획주거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12) 서유석, 양로원과 주거; 노인과 주거환경, 건축문화, 2, 1995.
- 13) 심우갑, 집합주거 환경평가의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 1986.
- 14) 오찬옥, 중년층의 선호성향을 통해 본 노인주거 모델-수도권 거주 중산층 주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15) 유혜정, 노인단독가구의 주거규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16) 윤복자, 이지현,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의 계승과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2), 1994.
- 17) 이경락, 橋弘志, 서봉교, 자립환경으로서 미래형 고령자주거에 관한 연구-일본사례의 주거내부공간 사용에 나타나는 공간의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9), 1996.
- 18) 이지혜, 노인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19) 전명숙,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 환경-서울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20) 주남철, 한국 주택건축, 일지사, 1990.
- 21) _____, 한국건축미, 일지사, 1995.
- 22) 지순, 윤복자 외, 노후생활 주택단지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노후생활에 대한 주의식과 노후생활 주택단지에 대한 욕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4(1), 1986.
- 23) 최정신, 3대 동거가족의 주요구-중소도시 거주 중년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24) 허병이, 도시지역 노인의 생활환경계획에 관한 실증적 연구-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25) 홍형욱, 한국 전통 주거생활연구(I), 경희대학교 논문집, 11, 1982.